

石油市場의 안정 위해 소비국과 산유국은 공동노력을

李鳳瑞
(동력자원부 차관)

이 자료는 지난 3월 5~6일 양일간 日本 東京에서 外務省과 通産省의 공동 주최로 열린 第2回 太平洋地域 에너지協力會議에서 李鳳瑞 동력자원부 차관이 행한 英文發表文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 다시 우리는 太平洋지역 국가들의 에너지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연구하였다. 主題는 협력, 즉 에너지資源탐사, 개발, 생산, 무역 및 절약과 같은 여러 분야에 대한 에너지生産國들과 消費國들간의 협력이었다.

本人이 참가한 第2分會에서 우리는 石炭과 관련 이들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토의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다양한 協力方案을 제시하였으나, 本人은 生産國들과 消費國들을 구별짓는 基本思考의 명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石炭무역에 있어서도 「답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하는

식의 문제점이 있다. 生産國들과 消費國들 중에 어느 편이 먼저 투자에 대한 공정한 수익(return)을 보장해야 하는가? 安定을 내세워 生産國들은 石炭消費國들이 장기구매를 보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石炭消費國들은 生産國들이 장기공급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더우기 에너지市場의 약세추세를 반영, 消費國들은 공급안정에 앞서 가격신축성을 강조한다. 장래 에너지가격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이러한 두가지 주장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價格不安은 석탄투자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다. 그러나 石炭價格不安의 원인을 石炭부문 자체에서만 찾아서는 않된다. 세계 에너지수요 구조상 石炭이 石油에 종속되어 있는 만큼, 石炭價格不安은 石油價格과의 상호의존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우리는 항상 燃料間代替의 경제성이 그 방향을 변동시키는 限界價格(threshold price)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 限界價格을 통하여 石油價格의 不安은 石炭價格不安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石炭부문에서의 協力は 그것이 雙務的이든 多者間이든간에 石炭무역의 추진에 限界效果(marginal effect)만을 갖게 될 뿐이다. 石炭市場의 순탄한 확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石炭과 石油간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이 石炭生産國과 消費國간의 상호의존성 인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전반적인 에너지市場의 불안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本人은 전세계 석유부문의 의미있는 協력이 이를 先導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石油價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産油國들은 자신들의 자의적인 油價조절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하려 하지 않고 있다. 소비국들은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인위적인 공급조절이 존재하는 한 短期시장가격은 고작해야 한계수요 및 한계공급의 반영에 불과할 뿐이지 반드시 長期균형가격을 導出해내는 것이 아니다. ●

지난 해의 이 심포지엄에서는 石油價格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石油價格이 그렇게 크게 변동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더우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石油情勢는 또 한차례의 파동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며, 이는 확실히 産油國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消費國들을 상당히 不安케 만들고 있다. OPEC를 중심으로 産油國들은 처방의 차원에서 油價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한편 석유소비국들은 시장기능의 가격조절 작용이 실체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 채 방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産油國과 소비국 그 어느쪽도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油價파동에 함축된 뚜렷한 교훈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産油國들은 자신들의 자의적인 油價조절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하려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비국들은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인위적인 공급조절이 존재하는 한 短期시장가격은 고작해야 한계수요 및 한계공급의 반영에 불과할 뿐이지 반드시 長期균형가격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産油國과 소비국간에 대화의 단절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대화의 부족은 지금까지 産油國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왔지만, 머지않아 소비국들도 마찬가지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첨예한 경쟁은 지양되어야 하며, 협력까지는 못갈지라도 타협의 정신이 팽배하여야 한다. 이제 産油國과 소비국 정부는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장기균형가격을 추정해낼 수 있을만한 납득할 수 있는 油價변동폭의 합의를 위하여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나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더구나 서로 일단 합의에 도달하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석유소비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양의 정부비축원유는 연동가격의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소비국들은 주어진 가격 범위내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시장안정을 위한 소비국들의 어떠한 지원도 생산조절을 통한 산유국 일방의 노력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懷疑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6개국 財務長官들이 보여준 환율조정을 위한 노력을 주목해 보자. 그들은 외환시장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결집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체가 스스로도 시인하듯이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石油市場에도 石油長官들에 의한 이와 비슷한 합의기구가 있을 법하지 않은가. 換率과 油價를 통제하기 위한 유사한 노력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면 두가지 목표에서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에너지의 투자는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위한 에너지정책도 지금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중압감을 주고 있으며, 石油의 난맥상이 油價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고 있는 사실이다. 石油輸入國 뿐만 아니라 輸出國간에 상호 협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 15년동안 경험하여 왔던 심각한 석유파동이 다시 도래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생존해 있다. 지금 우리는 이성적인 합의를 구성함으로써, 이 체제하에 안정적인 油價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